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호 [루게 제24791호] 주제104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육군 대장 현영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 동지, 정치위원인 항공군중장 손철주 동지를 비롯한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시고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길이 빛내이려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과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과 승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우리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우리의 비행사들은 수천수만갈래의 하늘 길이 있어도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총정의 향로만을 날으는 하늘의 성새, 방패로 역세계 자라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고 승리와 영광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항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그대로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끌어주신 항공군의 영광스러운 항로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력사

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령장들의 거룩한 령군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뜻깊은 항공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군중, 군단급단위들 중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제일먼저 모신것은 주체적항공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이끌어주신 항공군의 영광스러운 항로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은 전체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정신적기둥이고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동상정성사업과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늘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군무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항공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이 지나가나 싸움에 대하여 생각하고 모든 문제들을

싸움준비전지에서 보고 대하며 걸린 문제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술사상과 주제전법,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밑에 훈련의 질을 높이는 데 모를 막고 비행전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천과 무관한 훈련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가 없다고, 한가지 훈련을 하여도 내용과 형식, 방법이 현대전의 양상에 맞는 훈련, 실천환경과 접근된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성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은정속에 건설된 체육 및 문화시설들은 야외 축구장, 야외배구장, 야외농구장과 실내 수영장, 실내배구 및 농구장, 건식 및 습식한증탕, 샤워실, 리발관 등을 갖춘 종합체육관으로 이루어져있다.

최상급의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이 일떠섬으로써 이곳 부대장병들은 대중체육활동과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계절과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야외축구장에 인공잔디를 깔아놓으니 좋다고, 야외농구장과 야외배구장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체육시설들을 훌륭하게 꾸려놓으니 지휘부의 환경이 더욱 멋있어졌다고 기뻐하시였다.

종합체육관의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실내수영장은 물론 실내배구 및 농구장과 한중간, 리발관을 최상의 수준에서 출납을 데가 없이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건설한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은 앞으로

모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단들에게도 건설하게 될 시설들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이 육체훈련도 하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정말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무엇이 부족한것이 없는가를 헤아려보시다가 부대장병들이 영화와 최신군사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을 볼수 있는 영화관도 멋쟁이로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부에 새로 건설한 실내사격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내사격관을 잘 건설했다고 치하하시고 지휘성원들의 사격모습도 보아주시면서 사격관운영을 정상화하여 모든 지휘성원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올해 항공군사업의 시작이 좋다고, 2015년을 항공군의 전성기를 펼치는 해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는 부대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메어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수명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던 항일혁명선열들의 멸적의 투지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을 칠현으로 지켜갈 총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청천강을 보배강, 전기강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발전소 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인격해주었다.

그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수직차체의 다채로운 경제성동활들을 힘있게 벌려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해가는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평양정보기술교류사 연구사 박성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로동자 박명주는 조국의 막년제부를 일떠세우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격대에 망라되어 헌신하고있으며 후방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로력투쟁에 앞

장서고있는 선교구역련의봉사사업소 로동자 한영미,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임판공 산하단위 로동자 최은경은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지원사업도 잘하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적극 돕고있는 강동군련의봉사사업소 로동자 박영애는 건설자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며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로동자 홍금옥은 돌격대원들을 고무하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으며 룡성고기 가공공장 로동자 김혜옥도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에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 리사파 위원장 바셀레 오를레아누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해 영웅적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시키고 올해에 실현하여야 할 투쟁목표들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파는 김정은령도자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조선인민이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에도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대매국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동족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서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김정은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상적인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라틴아메리카주제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호세 프란시스코 아길라르 불가렐리가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새해 2015년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도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다고 긍지높이 총화하시였으며 조선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해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형제적조선인민이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조선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김일성주체와 김정일령도자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통일의 숙원인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기라고 확신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널리 보급시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열의로 농업전선이 들끓는다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열여가는 비약에로의 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실효성있게 조직한 협의회

관철사업들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달성을 위한 준비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주는것이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고 오늘도 충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할 일군들이 제 몫을 다하도록 준비시키는것이 중요하게때문이다. 책임일군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난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한해농사를 총화하고 다음해농사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를 주로 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관리위원장이 농사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데도 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그들이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맡고있었다.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농업전선에서 협의회의에서 제의하였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자각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줄수 없었다. 책임일군들은 이 사실에서 교훈을 찾았다. 당정책의 이행은 모든 일군들의 어깨에 다같이 지워져있다. 더구나 올해 당의 뜻대로 농산과 축산, 수산물 3대 축을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

과 산 군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반이안은 과산군 일군들이 알곡증산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진장에 몇몇이 들어서기 위한 방도를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첫 차 리 에

일군들이 알곡증산을 담보할수 있는 농사차비작전을 한 후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첫차리에 놓은 문제가 있었다. 농장원들에 대한 선전영양방법과 기술보급문제였다. 이것을 우선시한다는 사안이 있었다. 지난해 군에서는 많은 면적의 논에 이른모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농장원들에서 소식배배방법으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군들은 포전을 돌아다니며 파종에 일부 농장원들이 이 사실행에 대해 반발하는 현상을 알게 되었다. 여러모로 농사조건이 불리한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들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포전에서는 모를 많이 쏴야 수확을 높일수 있는것으로 인식하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모내기를 할 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는 물론 더 천천히 모를 길러내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확고히

농 은 문 제

가에서 소식배배를 한 벼가 전에 없이 아지를 많이 치고 결실도 좋은것을 보고서야 농장원들은 이 제배방법이 우월하다는것을 확고히 인식하였다. 일군들이 이 사실에서 찾은 교훈은 있다. 농장원들이 종전처럼 한해농사를 다 지은 가을에 가서가 아니라 농사차비때부터 신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난해 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것이였다. 때문에 군당협일군들은 일군들의 모양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도록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불어넣고 나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있다. 열매가지 농사대책안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해도 농장원들이 기술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농실천에서 큰 은을 낼수 없다.

농 은 문 제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농장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주는 데서 효과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때 경영위원회 기사가 내놓은 안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선진영양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반영한 편집물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 농장원들에게 보여주시는것이였다.

농 은 문 제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농 은 문 제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농장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주는 데서 효과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때 경영위원회 기사가 내놓은 안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선진영양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반영한 편집물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 농장원들에게 보여주시는것이였다.

농 은 문 제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포 전 에 서 작 전 하 자

서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고 서흥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포전에 하려 할때는 농장원들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장을 마련해가고있다. 지난해 해와 류다르트는 람조류생물활성화비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열의로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을 포전에 하려 할때는 농장원들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장을 마련해가고있다. 지난해 해와 류다르트는 람조류생물활성화비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람조류생물활성화비를 논밭에 내면 질소를 비롯한 농작물에 좋은 여러가지 유기물질이 대량 생겨나고 토양이 알맞은 양의 구조성토양으로 변화되어 농작물생육에 유리하며 살초효과까지 볼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람조류생물활성화비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람조류생물활성화비를 논밭에 내면 질소를 비롯한 농작물에 좋은 여러가지 유기물질이 대량 생겨나고 토양이 알맞은 양의 구조성토양으로 변화되어 농작물생육에 유리하며 살초효과까지 볼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람조류생물활성화비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이 그 편집물을 통해 앞선 단위와 자기들의 농사방법을 대비해보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제논으로 직접 확고하고 농사차비부터 그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가도록 할수 있었다.

재령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재령군 읍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술학습을 실효성있게 진행하였다.

사실 지난해 농장에서 10%의 면적에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알곡을 정보당 500~700kg 증수하였다. 그러나 제3작업반 1분조의 일부 포전들에서는 정보당 1이상의 알곡이 증수되었다.

기술학습이 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번영국 건설에서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뜻을 새겨보며 제3작업반 1분조가 되었다. 올해보다 더 많은 농장원들이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농장원들속에서 기술학습경쟁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어느 쪽이 더 리 득 인 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과업대로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여야만 무엇보다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일군들의 협의회는 처음부터 열기를 띠었다. 가물저항성종종과 함께 미끈찌레끼기, 발상태모기르기, 소식배배 등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런데 용배수로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제기되자마자 논의가 분분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영양단지모에 의한 소식배배를 받아들여 기술학습을 시작하는것으로 새해농사차비의 첫걸음을 뒀다. 일군들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료해해보니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보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았다. 일군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작업반의 기술학습성취를 알아보았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영농기술에 따른 기술학습을 기술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농장원도 잘 준비시켜 대우에 내세웠다.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켈기모임들이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과학연구,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전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열의안고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섰다. - 강서군 봉암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강남군 영진 협동농장 기계

마른논씨레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마른논씨레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려하기가 재성

려하기가 재성

강남군 영진 협동농장 기계

마른논씨레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마른논씨레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려하기가 재성

마른논씨레치기준비에 힘을 넣어

필승의 기상을 떨치며 체육강국의 봉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역센 힘 키워 더 높이 비약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국제경기 등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방을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각지 체육단들이어서 시작되었다. 각지 체육단들이어서 시작되었다. 각지 체육단들이어서 시작되었다.

말겨준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자면 겨울철훈련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그 어떤 상대라도 단연코 누를수 있는 강한 육체적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선수들이 사상적으로나 기술진술적으로 잘 준비되어 오 육체적으로든 훈련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 승리의 금메달을 생각할 수 없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여러 종류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선수들의 자랑찬 성과에는 완강한 겨울철훈련을 통하여 육체적능력을 더 높이고 기술, 전술발달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앞으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자격경기를 비롯한 모든 국제경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슬기와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을 것이다. 체육선수들 누구나 겨울철훈련을 통하여 육체적능력을 더 높이고 기술, 전술발달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앞으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자격경기를 비롯한 모든 국제경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슬기와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칠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훈련장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내내치게 하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기 활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경기의 성과는 선수들의 육체적준비와 기술, 전술에 의하여 담보된다.》**

지난해에 나라의 체육사업에서는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었다. 특히 미더운 체육인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여러 종류의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에서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각종 석공회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경이적인 성과를 얻어내었다.

이 기세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비약의 개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는것은 체육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서 우리 체육인들이 나서서 중요한 과제이다. 당이

대우에 긍지높이 올라설수 있는 강한 육체를 역척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 우리 선수들의 비상한 정신력과 과학의 힘이 안발치되면 겨울철훈련에서도 전례없는 성과가 창조된다. 감독들은 어제날의 경험에 매달리는 재래식훈련으로써는 세계적인 패권자들을 키워낼수 없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체육과학연구사, 체육의료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겨울철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노력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만하게 떨쳐가리라는 기도와 확신을 표명하고 사랑의 기념사전을 찍으셨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값높은 체육인의 영예는 세상에 없다.

영원한 태양의 빛바람과 더불어 격동적인 시대가 우리 체육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부르르고 있다. 세계를 압도하는 역센 힘 키워 더 높이 비약하자!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선수후비육성에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올해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안을 토의하면서 교장 박근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한것은 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였다. 지난해사업을 돌이켜보면서 찾은 경험과 교훈도 과학적인 교수훈련방법이 안배되지 않았고서는 좋은것은 체육선수후비육성을 더 많이 키워줄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날 체육과학기술펠합실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쳐갈 유능한 축구선수후비들로 준비해가고있다. -회령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남포항에서 경기는 처음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재지있는 기술로써 연속 공격을 들이대는 책임일군들의 수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의 응원열기로 드높았다. 경기장내에 넘치는 환상, 그칠새없이 울리는 사람들의 환한 응원소리... 그들은 체육열기가 차넘치는 광란적인 환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항쟁열혈군인 로영철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의 첫 체육의 날을 며칠 앞둔 남포항의 당책임일군이 그와 마주앉아 경기일정을 토의하면서 한가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것은 이미 세워진 경기일정에 항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는 경기종목이 없는것이였다. 우리 일군들이 체육경기조직이나 하고 박수나 쳐주는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체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주고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모든 종업원들이 대중체육사업에 참가하도록 할수 있겠는가. 이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체육사업에서도 일군들이 선수가 되어 체육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전선으로 적극 불러들이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체육경기일정은 다시 세워지고 올해의 첫 체육의 날에 항쟁열혈군인의 탁구경기도 펼쳐져 대중의 사기를 더욱 올려주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전철호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도서관을 훌륭히 개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행사에서 도서관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가장도도서관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건물의 외부와 주변환경은 물론 컴퓨터장비,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독자들이 리용하는 수백개의 방들이 현대적미감이 느껴졌다. 수많은 직관교육단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갖추어졌을뿐 아니라 도서관관리운영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가장도도서관은 당의 진인 과학기술인재후보양성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화학습의 거점, 과학기술자식보급기지이다. 지난해초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들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잘 운영할때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서관에 나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장계시대의 해당 부문 일군들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도서관의 면모를 현대적미감이 느껴질수 있도록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직관교육단들과 설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남포항의 대중체육을 위해 더욱 지대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와 결심을 다져나간다. 이

